

장자못 설화 연구

- 여성의 '돌아봄'의 의미를 중심으로 -

오정미(전북대)

〈목 차〉

- | | |
|-----------------|--------------------------------|
| 1. 서언 | 3. 장자못 설화의 기본구조의 의미:
母神의 탄생 |
| 2. 장자못 설화의 기본구조 | 4. 결론 |

1. 서언

장자못 설화는 한국의 대표적인 광포 설화 중의 하나이자, 소돔과 고모라 유형의 세계적인 분포를 보이는 설화이다.¹⁾ 장자못 설화에 대한 그간의 논의는 주요화소인 '금기'와 '홍수' 두 화소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자들은 주로 '홍수가 지닌 신화적 의미와'²⁾ '금기의 위반'에 담긴 전설의 비극성³⁾에 집중하

- 1) 구약성경의 창세기 18,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역시 신의 노여움으로 홍수가 발생하면서 인류가 멸망하고 뒤에 새로운 인류가 시작한다. 이러한 유형은 고대 바빌로니아, 히브리, 그리스, 중국 등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이야기로, 세계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최래옥, 『한국구비전설의 연구』(일조각, 1981).
- 2) 권태효, 「<돌부처 눈뿜어지면 침몰하는 마을>담의 홍수설화적 성격과 위상」, 『구비문학연구』(한국구비문학회, 1998), 235-265쪽.
이주영, 「한국홍수설화에 나타난 신과 인간의 대립담론」, 『한국민속학』(한국민속학회, 2011), 143-171쪽.
- 3) 최래옥, 전거서.
강봉근, 「<장자못전설>과 <각시바위>의 비교 연구」, 『국어문학』(국어문학회, 1999),

여, 유한한 존재의 실패 및 홍수로 인한 멸망과 재생이라는 보편적 방향으로 해석하였다. 이렇듯 ‘금기’와 ‘홍수’의 모티프에 간헐 경우 서사 안에서 소용되 는 두 모티프의 기능과 해석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간 설화의 ‘금기’ 화소에 대해서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지만, 아직 서사와 모티프의 의미와 관련하여 재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 특히 금기와 위반, 그에 따른 결과로 돌아 된 여성이 신성성을 가지게 된 단락에 대한 다각 적이고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향성을 가진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 고 있지만, 대부분 여성이 신앙시 되는 부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돌아보는 여성의 행위 자체가 가지는 부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 의견을 고수한 다.⁴⁾ 최근에 발표한 심우장의 경우, 장자못 설화의 돌아봄에 대해 재고하고

-
- 179-194쪽.
- 최학출, 「설화 모티프의 시적 변용」, 『울산어문논집』(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5), 191-212쪽.
- 한승철, 「설화의 삼분법에 대한 재고」, 『경거어문학』(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90), 315-334쪽.
- 장장식, 「금기설화연구」, 『한국민속학』(한국민속학회, 1984); 「금기의 갈등구조」, 『한국민속학』(한국민속학회, 1985).
- 김정은, 「전설에 대한 남북한의 관점과 소통 기능성의 전망」, 『남도민속연구』(남도민속학회, 2010), 59-85쪽.
- 최재선, 「구비설화의 금기모티프에 나타난 민중의식」, 『모악어문학』(전주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87), 127-147쪽.
- 김선자, 「금기와 위반의 심리적 의미에 관한 고찰」, 『중국어문학논집』(중국어문학연구회, 1999), 1-32쪽.
- 이상백, 「한국 금기설화의 연구」, 『어문학교육』(한국어문교육학회, 1981), 339-365쪽.
- 김혜정, 「<장자못 전설>의 전파력 연구」, 『구비문학연구』(한국구비문학회, 2009), 273-299쪽.
- 신연우, 「장자못전설의 신화적 이해」, 『열상고전연구』(열상고전연구회, 2000), 149-168쪽.
- 4) 여성의 신성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논문은 신동훈, 김선자, 최재선, 강봉근, 김용덕 등이 있다.
- 강봉근, 「<장자못전설>과 <각시바위>의 비교 연구」, 『국어문학』(국어문학회, 1999), 179-194쪽.
- 권태효, 전계서, 235-265쪽.
- 김용덕, 「금기설화의 구조와 상징적 의미 연구」, 『한국언어문학』(한국언어문화학회, 2008).
- 신동훈, 「설화의 금기 화소에 담긴 세계인식의 층위」, 『비교민속학』(비교민속학회, 2007), 417-446쪽.
- 심우장, 「전설에 나타난 송고의 미학-<장자못> 전설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국문학회, 2014), 327-360쪽.
- 이주영, 「한국홍수설화에 나타난 신과 인간의 대립담론」, 『한국민속학』(한국민속학회, 2011), 143-171쪽.
- 천혜숙, 「전설의 신화적 성격에 관한 연구」(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69쪽.
- 최재선, 「구비설화의 금기모티프에 나타난 민중의식」, 『모악어문학』(전주대학교 국어국문

있다. 다만 여성 행위가 아닌 금기 자체가 지니는 특성에 집중해 신성성과 부정성의 이중적 면모를 가지고 양가성을 이야기 한다는 점에서 본고의 진행 방향과 차별화된다. 신성성과 부정성의 교용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모순적이면서도 역설적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해석이 장르적 성격이나 금기의 모티프적 특성으로 환원하는 등의 실정이다

그만큼 며느리의 정치론은 서사구조상 의문을 남기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사에서 여성의 석화가 신성성을 얻는 부분은 변이형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기본형과 변이형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인다. 설화의 변이는 기본형에서 벗어나 독단적으로 변천한 것이 아닌, 기본형에서 합리적으로 진화한 유형이다. 변이형의 진화 과정을 설명한다면, 기본형의 의미 또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블라디미르 프롭이 이야기하고 있는 각 인물이 가지는 속성과 그에 따른 행위의 기능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⁵⁾ 그에 따르면 행위의 과정 위에서 주어진 기능이 갖는 의미가 고려되어야만 하며, 모든 기능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⁶⁾ 프롭의 기능은 각 편들에서 실행되는 다양한 변이를 함축하고 있으며, 다양한 변이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들 변이들은 기능이라는 불변적이고 지속적인 요소들에 의해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⁷⁾ 이러한 기능들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 간에 생겨나는 관계들에 대해 여러 가지 전제들과 의미화 작업들을 진행한다면 좀 더 폭넓은 설화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본고는 이러한 기능적 특징을 전제하여, 여성의 금기와 금기위반, 그로 인한 화석이 신성성을 갖는 의미를 해석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특히 변이형에서 드러나는 ‘신성성’을 해명하기 위해서 ‘금기’와 ‘금기위반’이라는 두 가지의 ‘기능’에 집중하고자 한다. ‘금기’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은 그것을 ‘신적 질서’

학회, 1987), 127-147쪽.

5) 프롭의 의견에 따르면 인물의 기능은 베셀로프스키가 말한 ‘모티프’나, 베디어의 ‘요소’를 대신 할 수 있는 민담의 구성성분이며, 행위는 이야기 내용이 서술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위치와 분리되어 규정될 수 없다. 그의 이론은 ‘민담’을 해석하는데 이용되었지만, 우리나라 설화를 해석하는 데 있어 일정 정도의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 본고에서 차용하고자 한다. 블라디미르 프롭 저, 황인대 역, 『민담형태론』(예림기획, 1998), 53쪽.

6) 상계서, 55쪽.

7) 송효섭, 『해체의 설화학』(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162쪽.

의 발현으로 보는 것이다.⁸⁾ 그것이 신적 질서의 일환이었다면, 왜 하필 그 금기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었을까. 그것이 신적 질서와 어떤 부분에서 연결되는지를 파악한다면, 결국 여성이 뒤를 돌아보게 된 이유와 그 결과의 의미가 분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 결과는 금기가 가지는 구조적 함의를 보다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2. 장자못 설화의 기본구조

연구의 범위로 다루고자 하는 자료는 장자와 며느리 모두가 등장하며, 며느리의 화석이 신성성을 얻게 된 화소가 첨가된 유형까지 포함한다.⁹⁾

장자못 설화의 기본적인 요소는 장자의 징치라 할 수 있다. 그 외, 장자와 대비되는 인물로 며느리가 등장하면서 금고(禁顧) 모티프가 삽입되었고, 인과 관계에 따라 ‘며느리의石化’와 ‘석화의 신성성’ 등의 모티프가 결합된 양상을 보인다.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마을에 인색한 장자가 살고 있다고 소문이 난다
- ② 승려가 시주를 요구하나, 장자가 거절한다

8) 신동훈, 전제서, 420쪽.

9) 「장자늪」, 1집 4책, 268쪽. 「보안면 웃선들의 장자못전설」, 5집 3책, 311쪽. 「남양소 장자못 설화」, 2집 3책, 156-157쪽. 「안동부락 장자못 전설」, 6집 8책, 156-158쪽. 「영산 장자늪」, 8집 11책, 108-109쪽. 「의령 북설 장자못」, 8집 11책, 475-477쪽. 「의림지 장자못 전설」, 2집 8책, 555-556쪽. 「인색한 사마장자」, 6집 8책, 540-560쪽. 「장자 이야기」, 2집 3책, 45-47쪽. 「장자골의 전설」, 7집 4책, 205-206쪽. 「황희정승과 황지못」, 7집 13책, 477-480쪽. 「황지 장자못의 유래」, 8집 11책, 631-633쪽. 「황지의 장자못」, 8집 13책, 552-553쪽. 「중을 팔시한 만석꾼, 장자못」, 7집 2책, 62-64쪽. 「중 팔시해서 연못이 된 장자터」, 3집 3책, 29-31쪽. 「장자 풀이」, 5집 6책, 506-519쪽. 「장자못과 돌이 된 며느리」, 7집 8책, 1176-1178쪽. 「장자못 전설」, 6집 8책, 52-53쪽. 「장자못 전설」, 2집 3책, 329-332쪽. 「장자못 전설」, 2집 8책, 554-555쪽. 「장자못」, 7집 6책, 55-57쪽. 「장자못」, 9집 1책, 91-93쪽. 「장자못」, 8집 3책, 453-455쪽. 「장자못」, 8집 7책, 539-540쪽. 「장자못」, 7집 6책, 291-292쪽. 「귀래리 방아못 전설」, 1집 5책, 248쪽. 「황지못과 돌미륵」, 7집 10책, 564-565쪽. 「돌미륵이 된 조수바위」, 7집 17책. 「장연 장자못 전설」, 최래옥, 『한국구비전설의연구』(일조각, 1981), 288-289쪽. 「부안군 보안면 상입석의 장자못 전설과 개바위 전설」, 박영달, 『전북부안지방설화연구』(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7), 28쪽. 「정읍군 고부면 신흥리 장자못 전설」, 상계 논문, 28-29쪽. 「부안군 보안면 상입석리 장자못 전설」, 상계 논문, 28-29쪽. 「부안군 보안면 신흥리 장자못 전설」, 상계 논문, 34쪽. 「부안군 장자못 전설」, 상계 논문, 32쪽. 최선만편: 강릉의 역사변천과 문화(강릉관광협회간, 1962, 11), 41쪽.

- ③ 장자의 며느리가 시주를 한다
- ④ 승려가 며느리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을 오르라고 한다
- ⑤ 장자의 집터는 수장되고 며느리가 뒤를 돌아본다
- ⑥ 며느리는 돌이 되고 신성성을 얻는다¹⁰⁾

각 단락소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에 인색한 장자가 살고 있다고 소문이 난다. - 결핍

이야기의 가장 큰 사건은 실존적 존재의 결핍이 아닌, 실체가 없는 ‘소문’에 근거한다. 인간은 고통을 일으키는 사건들이나 현상들의 원인을 인간 내면에서 찾으려 하면서 도덕적인 원인으로 환원시키게 된다. 장자의 악행이 소문으로 촉발된 이 사건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심층에 깔린 집단적 기억에서 비롯되고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어떤 구조에 바탕하고 있는 것이다.¹¹⁾ 이렇듯 ‘소문’ 속에는 실존적 결단을 하는 주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익명의 ‘世人(das Mann)’만이 존재할 뿐이다.¹²⁾ 장자못 설화 안에서 직접 구원을 요청하는 화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소문’이 장자를 고발함으로써 어떤 실체를 이미지화하여 통제하기 쉬운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다. 방문자는 이러한 소문의 실마리를 좇아 마을을 방문한다.

2) 승려가 시주를 요구하나, 장자가 거절한다. - 시험 1

방문자는 시주라는 과제를 통해 소문의 진위여부를 검증하고자 하고, 장자가 시주를 거부함으로써 소문을 실체화시키는데 성공한다. 승려의 ‘시주’는

10) ‘며느리의 돌이 신성성을 갖는다.’는 단락소는 장자못 설화의 변이형이다. 이렇듯 며느리의 석화가 기자석으로서 드러나는 이야기는 총 5개이다. (『귀래리 방아못 전설』, 한국구비문학대계 1집 5책(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황지못과 돌미륵』, 한국구비문학대계 7집 10책(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문공부, 『한국민속종합자료보고서』(황해, 평남북 편, 1980), 『의령 북실 장자못』, 한국구비문학대계 8집 11책(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장자못전설』, 한국구비문학대계 2집 3책(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본고는 장자못 설화의 기본형과 더불어 변이형의 의미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았기에 함께 다룬다.

11) 이숙인, 『소문과 권력』, 『철학사상』(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1), 69쪽.

12) 마르틴 하이데거 저, 소광희 역, 『존재와 시간』(경문사, 1995), 4장 27절.

시험 대상자의 단순한 선악(善惡)의 선별이외에 더 큰 조건을 요한다. 승려의 시주 요청은 단순한 금기가 아닌 당위적 실천을 요구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시주는 과욕을 금기하는 것 외에도 자신의 것을 더 내어주는 이타적 행위를 의미한다. 주린 이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은 타인에 대한 자비이자 곧 생명에 대한 존중이다. 즉, 그를 위해 자신마저 내어주는 것이며 보답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증여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주는 바로 희생에 대한 요구이다. 그리고 희생이야말로 이 시험이 요구하는 중요 자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자는 승려에게 똥을 퍼주고 심한 모욕감을 준다. 이와 같은 시주 불응은 한 개인의 결핍을 증명하는 동시에 가족 공동체의 전체적 결핍으로 작용한다.

3) 장자의 며느리가 시주를 한다. - 시험 통과 1

장자의 며느리는 시아버지 몰래 승려에게 쌀을 시주한다. 이로써 처음에 요청됐던 요구가 여성의 행위로 잠정 해결된다. 여성의 시주는 인정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자 생명에 대한 자비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흥폭한 시아버지 몰래 시주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안위를 고려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감행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의 내재적 자질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단락소는 앞서 전제된 2 단락소의 연쇄라 할 수 있다. 이미 장자에 대한 소문은 이 시험을 실패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동일한 시험이 두 인물에게 치러지는 동태(move)¹³⁾는 그에 대한 방증이라 할 수 있다. 장자는 며느리가 선택받기 위한 예비적 장치이자 대비적 인물로서, 여성이 기존의 갈등을 해결하며 사건을 이끄는 주체 인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계기를 통해 장자와 며느리는 각각 수단적 인물과 주체적 인물로 분류되면서 더 이상 동일한 행위자가 아닌 별개의 인물로 진행된다. 즉, 시주라는 하나의 시험을 기점으로 며느리는 장자가 표상하고 지배하는 상징적인 영역에서 분리된다.

13) 프롤이 말한 여섯 개의 이야기의 진행 방식 중 하나로, 이야기가 두 개의 동태로 이루어져 있되, 하나의 동태는 주인공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다른 하나는 부정적으로 끝나는 경우를 말한다.

4) 승려가 며느리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을 오르라고 한다.

- 시험 2

며느리는 승려에게 시주하면서 승려의 선택과 함께 禁願을 부여받는다. 이 때 승려는 신의 대리자이며, 그의 지령은 신이 인간에게 강제하는 사항이다. 그렇다면 며느리의 등 뒤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며느리에게 ‘등 뒤’는 악행을 일삼은 장자의 영역인 동시에 가족이란 공동체이면서 집이라는 일상적 공간이다. 집은 모든 관계가 집약되어 있는 정신적 공간이자 인간실존의 근원적 중심이라는 합의된 장소의 이미지가 존재한다.¹⁴⁾ 승려가 며느리에게 내린 ‘금고’는 바로 이 공간에 대한 위협이다.

“대사의 ‘당신 나를 따르라’는 말에 상입석리 마을 뒤까지 따랐는데 ‘지금 미구에 당신내 집에는 큰 변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뒤를 돌아보지 마시오.’라고 했다.¹⁵⁾”

“니 살라 카거들랑 너거 집을 돌아다보지 말고 내 따라만 오이라.¹⁶⁾”

“이 집에 당신이 있으면 죽을 테니까 따라 오는데 절대로 뒤를 돌아 보지 말아라”¹⁷⁾

“큰일납니더 큰일 나는데 색씨가 그카는데 오늘 마 비가여 큰 비가 오는데 천부(천부) 먹 이 동네 사람 다 오이(천부) 떠내려 가 죽니더. 그러이 그래 요량 하고 덕네라도 사소”¹⁸⁾

“살려면 따라와라.”¹⁹⁾

14) 에드워드 펠프 저,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논형, 2005), 96-100쪽.

15) 박영달, 전계 논문, 28-29쪽.

16) 『의령 복실 장자못』, 한국구비문학대계 8집 11책(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476쪽.

17) 『장자못 전설』, 한국구비문학대계 2집 8책(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554-555쪽.

18) 『장자못 다른 이야기』, 한국구비문학대계 7집 3책(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19) 『황지 장자못의 유래』, 한국구비문학대계 8집 11책(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이 고지는 단순히 인물의 행위를 규제하는 절대적인 의미의 ‘금기’라기보다 각 인물에게 부여되는 속성과 연계된 ‘기능’으로 볼 수 있다.²⁰⁾ 심성이 착한 며느리의 ‘뒤’에는 가족이 위협에 처해있고, 며느리에게 ‘금기’는 돌아보지 않으면 그 위협 속에서 홀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속삭이는 신의 전언이다. 그러므로 이야기 속 금기는 며느리의 목숨을 담보로 행해지는 신의 강제적 위협인 것이다.

앞서 ‘시주’라는 행위가 며느리의 인정에 대한 발로라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과제 역시 더 큰 인정을 확인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작은 선행을 시험하는 관문이었다면, 두 번째 시험은 앞선 시험을 뛰어넘는 더 큰 시련으로, 목숨을 위협하는 위협이 내재되어 있다.

5) 장자의 집터는 수장되고 며느리가 뒤를 돌아본다. - 시험통과 2

장자는 가족의 장(長)으로서, 구성원 전체를 대표한다. 그러므로 시주 불응으로 야기된 장자의 결핍은 간접적으로 가족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결국 장자라는 한 인물의 악성(惡性)이 집터의 수몰이라는 변곡로 이어지면서 가족 공동체의 전체적 결핍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집이라는 공간 전체의 수장은 서사의 갈등이 정점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그 뒤, 여성의 전언 위반이 등장한다. 여성은 결국 신의 제안을 물리치고, 가족들이 남아있는 뒤를 돌아보게 된다. 그러나 여성의 금기위반을 단순한 호기심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한 인물적 속성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프롭에 의하면 서사 안에서 모든 기능들은 순차적 구조에 의해 연쇄된다. 며느리가 뒤를 돌아본 것 역시 앞서 제시된 등장인물의 기능과 관련이 깊다. 즉, 며느리의 돌아보는 행위는 시주가 함의하는 속성의 연장선으로서 가족에 대한 연민이자 인정(人情)의 발로라 할 수 있다.

20) 만약 금기를 부여받는 인물의 속성이 호기심이 강한 인물로 묘사되었거나, 반드시 위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던 성격이 전제되었다면 ‘금기-위반-징치’의 구조라고 단언할 수 있다. 이때의 금기는 주인공의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과정으로, 앞서 제시된 인물의 성격에서 실패가 예견되어 진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프시케의 경우,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말라는 금기가 주어진다. 그의 금기 위반은 프시케의 호기심이 많다는 명제가 전제되었기 때문에 위반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그의 징치 또한 마땅하게 여겨진다.

“중은 아무 날 아무 시에 비가 많이 올테니까 집을 떠나 산으로 가는 데 뇌성벽력이 있어도 뒤돌아 보지 말고 가라고 하였다. 초 닷새 날에 벗어벽력이 치고 비가 와서 도망을 가는데 여자의 마음이란게 가정을 버릴 수 없어 선돌이라는데서 뒤를 돌아 보았는데 개가 따라 오다가 개도 뒤를 돌아 보아서 돌이켰는데 개바위라 하고 못은 장자못이라 한다.”²¹⁾

“그러나 부모에게 효도하는 여인이고 제 혼자 사는 것도 안되어서 뒤를 돌아다 보아 돌로 변하여 화석이 되고 애기 엷은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 집은 못이 되어 장자못이라 한다.”²²⁾

“천지가 막 개벽하는 소리가 막 팡 하는 소리가 나니까네 이 여자가 안 돌아볼 수가 없는 게라 자기 살던 집이니까네.”²³⁾

“인자 저거 남편생각 시부모생각 자식생각 전부생각이 나는데 그래 인자 서미에서 딱 나오다가 요거는 간단합니다 아무래도 본정신이 나가거등 그래 살 이래 돌아봤는기라.”²⁴⁾

그에 대한 방증으로, 며느리는 신의 금기를 위반하고 나서도 여전히 ‘가정을 버릴 수 없는 여자의 마음’, ‘부모에게 효도하는 여인’이며, 끝내 자신 혼자서만 살아남을 수 없는 일련의 성격을 지닌다. 서사 안에서 며느리의 성격과 행위 자체는 지극히 일관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며느리의 돌아보는 행위 역시, 이러한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여기서 장자와 며느리가 부모-자식이라는 관계망에 속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시)아버지-딸(며느리)이라는 관계항인 경우, 결핍이 있는 아버지와 결핍을 해소하려는 딸로 대립쌍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바리공주는 자신을 유기한 아버지인 오구대왕을 구명하기 위해 구약여행을 떠나고, 심청이는 무능한 아버지를 위해 스스로 매신한다. 장자못의 착한 며느리 역시 인정 사나운 시아버지를 위해 결국 뒤를 돌아본다. 며느리의 행위는 앞선 두 여

21) 박영달, 전계 논문, 28쪽.

22) 상계 논문, 28-29쪽.

23) 『한국구비문학대계』 7-10, 565쪽.

24) 『한국구비문학대계』 8-11, 476쪽.

성보다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미 금기를 부여받고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돌아본다는 자체만으로 주체적 의지를 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착한’ 성품을 지닌 딸들은 내재적 결핍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버리지 못하고, 결국 돌보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²⁵⁾ 자기희생을 통해 부모를 봉양하고 돌아보는 마음, 우리는 이 인정어린 행위를 ‘효’라고 이야기한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보이는 인물들의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효’로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이다.²⁶⁾ 세 명의 여성들이 겪는 여정의 기저에는 ‘효’가 자리하고 있고, 인정을 넘어선 사회의 특정한 가치를 내면화를 통해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장자못 설화에서 효를 드러내기 위한 인물로 며느리가 설정된 이유는 어째서인가? 장자못 설화는 개인의 결핍이 내부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외부까지 확장되어 공동체의 위기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주체가 가족 구성원내 혈연자가 아닌 외부에서 유입된 인물이면서 여성이라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고대시대에는 홍수와 같은 국가적인 대재앙의 위기에 처한 경우, 가장 무고하면서 깨끗한 희생양이 소용되어야만 했다. 그것은 왕의 딸이나 가장 고귀한 인물이 되었다.²⁷⁾ 이와 마찬가지로 며느리는 외부에서 유입된 ‘타인’이자, 가장 깨끗한 인물인 동시에 가족 구성원의 일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 내 가장 무고한 이 여성의 희생을 통해 서사 내의 결핍이 해소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효를 드러내는 방법이 자기희생적이라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여성의 돌아봄은 타인을 위해 스스로를 죽음에 내어맡길 수 있을 때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에서 발현된 여성의 효심과 인정은 여성 본연의 정체성이자, 바로 모성(母性)의 현현이다. 모성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이자, 그 생명을 보

25) 오이디푸스에서 금기를 위반한 오이디푸스의 곁을 끝까지 돌보며 함께 길을 떠나는 것 역시 그의 딸 안티고네이다.

26) 결과적으로 바리테기와 심청이의 경우 아버지의 목숨을 살리는 과업을 성취하지만, 장자못 설화의 경우에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구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아버지의 결핍이 개인적 갈등이 아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자식의 유기, 가계의 빛 등은 아버지와 딸의 직접적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장자의 결핍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인물의 행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실체가 없는 소문에서 발발한 것 또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닌 간접적인 위협을 초래한다.

27) 장영란, 『희생제외와 희생양의 철학적 기능』, 『동서철학연구』(한국동서철학회, 2013), 102쪽.

호하고 품어 안으려는 여성의 강한 의지라 할 수 있다. 며느리가 이 모성 때문에 징벌의 대상이 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승려의 돌아보지 말라는 금기는 부정이 아닌 강한 긍정으로, 현대적인 암시이다. 결국은 돌아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 더 강하게 돌아봐야 함을 역설적으로 의도한 것이다. 즉 금고는 제재가 아닌 위반을 종용하는 메세지라 할 수 있다.

6) 며느리는 돌이 되고, 신성성을 얻는다. - 결핍 해소

집은 개인으로서, 그리고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우리 정체성의 토대이자 존재의 거주 장소이면서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의미의 중심이다.²⁸⁾ 그러나 그 공간이 일순간에 수몰되었다. 그 광경을 목도하게 된 여인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비 콕스는 나치 독일에 의해 파괴된 체코 마을인 리디체에서 온 한 여자의 예를 인용하며, 이 여자는 남편의 죽음과 자식들과의 이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겪은 최대의 충격은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 발견한, 폐허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마을 풍경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R.J. 리프톤의 히로시마 생존자에 대한 연구에서, 도시의 파괴를 목도한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한 역사학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²⁹⁾

“나는 히로시마 언덕에 올라가서 내려다보았다. 히로시마가 사라져버린 것을 보았다. 나는 그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 그 때 내가 느꼈고 지금도 여전히 느끼고 있는 것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다. 물론 나는 그 이후에 많은 끔찍한 장면들을 보았다. 그러나 바로 그 경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히로시마의 모습을 발견했던 그 언덕에서의 경험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우리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을 때, ‘돌처럼 굳어버렸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수몰된 집을 처음 보게 된 ‘여성’의 참담한 심정 또한 이루 말할 수

28) 에드워드 펠프 저,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전게서, 97쪽.

29) 상게서, 99쪽. 이 단락 전체와 아래의 예시를 모두 인용하였음.

없을 것이다. 장자못을 발견한 여성의 충격과 슬픔은 누구보다 인정 넘치고 선한 여성을 돌로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 여성의 석화는 어떤 신이한 힘에 의한 징치라기보다 여성이 본래 지니고 있던 선천적 자질에서 연원한 결과일 수 있다. 善에서 연루된 동정, 슬픔, 그 모든 감정들이 응집한 결과인 것이다. 강릉경포대 전설을 보면 이러한 부분이 잘 드러나 있다.

“한 계집이 딸을 데리고 살았다. 하루는 노승이 문간에 이르자 그 여자는 질색을 하며 돌항아리에다 똥을 가득히 하여 던지니, “그러냐?”고 하면서 받아 가지고 가기에, 계집은 그의 이상한 태도에 놀래고 무서워 쫓겨 북문(北門)에 이르자, 노승은 돌아다보며 “너의 집 문까지 물이 가득하니 돌아보지 말고 빨리 달아나라!”고 하고는 문득 보이지 않더니, 해 저물 무렵 과연 말 한 바와 같으므로, 계집은 딸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성문 밖으로 달아나니 溟洲一府가 모두 물이 되고 사람과 축생이 모두 빠졌고, 계집은 그 딸 생각을 하고나서 號哭함으로 인해서 돌이 되었다고 한다.³⁰⁾”

“중이, 건 대순디(大師인테) 그 날은 흐 번 올라가 보자고 허여가지고, 올라 가는 도중에 대우방수천리(大雨方數千里)가 베락치면서 내려치는디, 뒤테레(뒤로) 이젠 보랏던(봤던) 말입니다. 보랏 것이(본 것이) 그 메누리는 망부석(望夫石)이 돼여 불고(되어 버리고), 그 놈의 부젓집은(부젓집은) 떼려 부수완 못으로 딱 떼리완(떼려) 데껴두고(던져 두고), 내중은 그 집터가 못이 돼여 부러던 말입니다.³¹⁾”

여성은 마을이 수몰된 광경을 마주하자, 두고 나온 딸에 대한 애통한 생각 때문에 호곡(號哭)을 그치지 못한다. 망부석은 딸을 두고 나온 어머니의 모성에서 연원한 애달픔이며, 그에 대한 순차적인 결과이다.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박제상의 망부석 설화 역시 같은 맥락이다. 신라 눌지왕 때 박제상이 일본에 불모로 있는 왕자를 구출하고 자신은 죽임을 당해 돌아오지 못하자, 그의 아내 수릿재에 올라가 통곡하다가 그대로 돌부처가 되어 수릿재 神母가 되었다. 그 바위를 뒷날 사람들이 망부석이라 부른다. 망부석의 남편을 향한 정

30) 최선만편: 강릉의 역사변천과 문화(강릉관광협회간, 1962), 41쪽.

31) 『장자못』, 한국구비문학대계 9집 1책(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91-93쪽.

신적인 응집력은 시간의 한계성마저 초월한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만이 돌로의 변신이 가능하다.³²⁾

여성의 석화는 바로 선(善)에 대한 집중과 그에 대한 결과이다. 이러한 정신적인 응집력이 바로 몰입인 것이다. 이 역시 망부석 설화와 마찬가지로 인정과 감정의 몰입이 신성화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장자못 설화의 경우, 여성에게 신성성이 부과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그래 거기다가 그냥 저건 할 수 없대구, 그 여자를 거기다 부처를 만들어 놓구갔다 그렇다더니”³³⁾

“딱-! 돌아 보는데 그제 고마 돌미륵이 됐부랬어요, 어린애 엮은 채로, 이래 돌따보는 형상 그대로”³⁴⁾

“그러니까 돌아다보던 순간에 기냥 바위가 됐어요 그래서 아덜을 못났던 사람은 요기 가서 삼칠일 기도를 드리면 태몽에 꼭 소복을 한 여자가 나타난다던가 중이 나온다던가 구름을 타고서 사람이 내려온다던 가 그래 거기 갔다가 얘기가 있을 사람은 그런 꿈이 있구요”³⁵⁾

“요래요래 있다가 얘기 못 놓는 부녀 와서 공들이거던 애기나 태주고 그래 있거라”³⁶⁾

“그 여자는 거기서 죽어버리고 그 서낭이 그 며느리라는 게야.”³⁷⁾

위 이야기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한 부녀가 석화된 며느리에게 공을 들이면 아이를 점지해준다고 전하고 있다. 여기서 여성을 형상화하는 ‘돌미륵’, ‘미륵’, ‘부처’, ‘서낭’ 등을 통해, 석화된 며느리가 민간 신앙의 하나로 자리잡음을 확

32) 김미란, 『한국소설의 변신논리』(태학사, 1998), 22쪽.

33) 『귀래리 방아못 전설』, 한국구비문학대계 1집 5책(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248쪽.

34) 『황지못과 돌미륵』, 한국구비문학대계 7집 10책(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564-565쪽.

35) 문공부, 『한국민속종합자료보고서』(황해, 평남북 편, 1980), 326-327쪽.

36) 『의령 복실 장자못』, 한국구비문학대계 8집 11책(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476쪽.

37) 『장자못전설』, 한국구비문학대계 2집 3책(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330쪽.

인할 수 있다. 여성이 두 차례의 시험을 통과한 후 얻게 되는 이 신성한 생산성은 앞서 ‘시험-시험통과’라는 구조를 증명하는 단초가 된다. 만약 며느리의 화석(化石)이 비극적인 산물이라면, 그것이 추앙받고 생산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부합하지 않는다. 금기를 위반한 징표가 후세에서 터부시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방증으로 여성의 금고 위반이 삽입되지 않아도, 여성의 화석이 애초에 미륵이나 부처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 강아지가 한 마리 쫓아온 기라. 그래가지고 고 재에 올라니까네 그만 거어 몰바다가 돼 버렸어요. 집이 없어지고 그래 가 그 여자가 미륵이 되고, 강아지도 미륵이 되고 이래. 증은 간 곳 없고. 그리 됐읍니다. 옛날에 그런 예도 있어요.³⁸⁾”

여성과 장자에게 부과된 시험 과제는 ‘시주’와 ‘돌아봄’이었다. 이 과제가 의미하는 것은 악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인정에 대한 말로와 희생에 대한 요구이다. 타인에게 보시하고 시주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증여라 할 수 있다.

‘증여’의 원리 내부에는 종교적 사고가 내재되어 있다. 증여가 오랜 시간을 걸쳐서라도 답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순수증여는 보답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즉, ‘증여’의 극한에는 ‘순수증여’의 원리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증여’를 둘러싼 사고는 곧바로 ‘순수증여’를 둘러싼 종교적 사고를 탄생시킨다. 이것은 ‘신神’이라는 단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순수증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힘은 물질화되지 않으며 현상화되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모습을 감춘 채로 인간에게 뭔가를 계속 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³⁹⁾ 이러한 순수한 증여는 며느리의 석화를 기점으로 분명하게 드러난다. 며느리가 석화 이전에 보시를 통해 타인에게 증여를 베풀고

38) 『황지(黃池)의 장자못』, 한국구비문학대계 8집 13책(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552-553쪽.

39) 나카자와 신이치 저, 김옥희 역,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동아시아, 2009).

‘증여’는 나카자와 신이치가 주장한 경제적 관념의 용어로, 모스의 ‘증여론’에서 발전한 이론이다. 경제라는 전체적 현상은 교환, 증여, 순수증여인 세 가지의 다른 시스템이 뒤엉킨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세 가지의 체계는 라캉의 ‘보로메오의 매듭’처럼 하나의 토폴로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문단은 모두 위 책에서 인용되었다.

신의 시험대에 오를 수 있는 혜택을 증여받은 것은 분명 호혜성이 존재한다. 즉, 순수증여라고 하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며느리는 2차 시험까지 통과한 이후 석화됨으로써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에게 생명을 점지해주는 무조건적인 배움을 증여한다. 바로 모성을 넘어서 생산을 주관하는 모신(母神)으로서의 직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결국 주인공의 이타적인 행동은 자기희생의 결과로 연결되며, 이 석화는 다시 이타적인 신성성으로 순환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것이 바로 증여에서 순수증여로 넘어가는 일종의 이니세이션이며, 인간이 모신의 경지로 입문하는 과정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모신(母神)은 모성원리(母性原理)가 인격화(人格化)된 신으로, 어머니의 상징인 자애(慈愛)와 정신력, 생산력 등을 강조한 신이라 할 수 있다.⁴⁰⁾ 며느리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보시 등의 이타적 행위들에서 느낄 수 있는 자애와, 목숨을 걸고 뒤를 돌아보는 정신의 응집력, 그리고 석화 뒤에 발생하게 된 생명의 생산력까지, 이 모든 조건들이 며느리를 모신이라 말할 수 있는 증거들로 볼 수 있다.

여성이 돌로 변화했다는 것 또한 신화적 도구의 일례로 볼 수 있다. 예로부터 돌은 생식숭배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돌이 大地母神의 뼈⁴¹⁾로 여겨지는 관념은 보편적이었다. 엘리아데 역시 돌에서 태어난 인간에 관한 신화를 대지의 태내에서 돌과 광석이 발생하고 성숙한다고 했다. 이 두 가지 신앙이 모두 돌은 생명과 다산(多産)의 원천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으며 돌은 살아있는 것이고 자신의 대지에 의해서 생겨났듯이 인간을 낳는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렇듯 돌이 절대적 실재나 생명, 신성성을 표현하는 원형적 이미지라는 점은 세계의 모태인 대여신과 동일시된 생식석으로부터 태어난 신들에 관한 수많은 신화를 통해서 증명된다.⁴²⁾ 만족(滿族)의 돌의 두카허 여신(多闊霍)

40) 원시 모신의 신앙은 세계적인 규모로 존재하고 있다. 고대 인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샤크티는 영원히 생식하는 여성의 에너지를 의인화(擬人化)한 모신이며, 바빌로니아·아시리아의 모신인 이슈타르테(이슈타르) 역시 자연의 풍요력(豐饒力)을 유지할 수 있는 직능을 가지고 있다.

41) 진 쿠퍼 저, 이윤기 역,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까치, 1994), 383-384쪽.

42) 미르치아 엘리아데 저, 이재실 역, 『대장장이와 연금술사』(문학동네, 1999), 46쪽.

역시 생육(生育)의 여신이였다.⁴³⁾ 이렇듯 여성이 여러 가지 변형 중에서, 하필이면 ‘돌’이 되어 생산성을 가진다는 것은 여성의 화석(化石)이 장자의 정치와 크게 변별되는 점이자, 여성의 시험통과가 성취해낸 성과로 파악할 수 있다.

며느리의 석화는 며느리가 선에 몰입하여 얻은 성과이다. 며느리는 두 번에 걸쳐 진행된 시험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인정과 연민을 완성시켰다. 이와 같은 2번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바로 ‘선(善)’에 대한 몰입의 경지에 입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힘으로 여성이 미륵화생(彌勒化生)한다고 할 수 있다. 미륵은 어떤 존재인가. 미륵은 미래불이고, 희망이고, 생명이며, 구원자이다. 이야기 안에서 여성이 결국 돌아볼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은 선(善)에 대한 투철한 의지의 표상이며, 이것은 하나의 징표가 된다. 여성의 선한 의지는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생명 그 자체이다. 그 때문에 여성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행에 빠진 자들을 돌아보는 구원자인 동시에 희망의 상징이 되고, 이러한 상징이 여성의 화석으로 이식되어 신앙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의 석화는 살아있는 돌이다. 불교에서 인간의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몸은 단지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미륵이 되었다는 것은 불교에서 극도의 해탈의 지경을 의미한다. 미륵화신은 단순한 돌이 아니다. 죽음의 심연을 향한 신화적 통로를 뜻하게 된다. 화석은 곧 삶의 극(極)으로 죽음 직전에 놓여 있고, 죽음과 삶의 접점이다. 화석(化石)은 삶도 죽음의 길도 아닌, 제3의 길이 되는 것이다.⁴⁴⁾

이것은 마치 기독교의 십자가와 동일한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⁴⁵⁾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타인을 위해 살신성인하였던 희생에서 안타까움과 성스러움을 동시에 느낀다. 며느리의 화석 역시 자신보다 타인을 살피고, 어찌할 수 없는 마음에 뒤를 돌아보고야마는 인정스런 미륵의 모습을 취한다. 장자못 설화에서 느끼는 안타까운 정서와 며느리의 화석이 갖는 신성성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43) 김재용·이종주, 『왜 우리 신화인가』(동아시아, 1999), 225-22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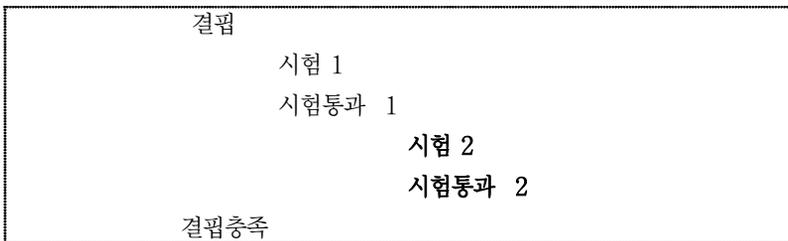
44) 최학출, 『설화 모티프의 시적 변용』, 『울산어문논집』(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5), 195쪽.

45) 조셉 캠벨 저, 이윤기 역,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민음사, 2010), 277쪽.

3. 장자못 설화의 기본구조의 의미: 母神의 탄생

장자못 설화의 서사는 크게 결핍과 결핍 충족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총 4개의 단락소가 삽입되어 있다. 그 중 금기는 서사 내부에서 부정이 아닌 강한 긍정을 암시하는 것으로, 작중 인물에게 행위의 금기가 아닌 행위의 실행을 유도한다. 이는 마치 신화에서 영웅이나 신이 겪게 되는 몇 차례의 시련과 그에 대한 극복의 이니세이션과 흡사하다.

장자못 설화에서 금기는 시험의 기능과 동일하며, 여성에게 요구하는 중요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라 할 수 있다. 이는 모두 인정과 희생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처음 시험이 단지 일신(一身)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작은 선(善)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시험은 목숨을 던져야만 수행할 수 있는 과중함이 있다. 이 금기는 명백한 '유혹'이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 한다.⁴⁶⁾ 위협에 처한 사람이 살려고 하는 의지, 이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다. 그리고 며느리를 위협하는 금기는 바로 인간의 삶에 대한 욕구와 직결된다. 이 시험은 강한 금기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실행할 수 있는 선(善)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며느리는 이 시험을 거쳐서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의지를 확인하고, 이로써 2차 시험이 완성되는 것이다. 결국 승리의 금기는 며느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닌, 구원의 방해물이다. 그러므로 장자못 설화의 구조에서는 반드시 위반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며느리는 이러한 과제의 성취를 통해 처음 제시된 결핍을 해소시키는 물론 또 다른 존재로 재탄생하게 된다.



〈장자못 설화 구조〉

46) Aristotle, *De Anima*, 431a.

서사 안에서 완성된 머느리의 화석화(化石化)란, 그 죽음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생명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은 육체의 희생으로 인해 영혼의 신성성을 얻는다. 인간이 신성화되는 구조라 할 수 있는 알렌 던테스의 순교자의 구조⁴⁷⁾ 역시 이와 흡사하다. 머느리의 죽음은 단순한 생의 단절이 아닌, 또 다른 생으로 가는 길이다. 공동체의 차원에서 볼 때 죽음에서 출발하지 않는 생명은 없으며, 이렇게 해서 죽음은 진정한 신성, 즉 가장 이로운 것과 가장 해로운 것이 결합되는 곳으로 보일 수 있다.⁴⁸⁾ 그리고 이 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머느리의 선(善)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은 죽음이었으며, 희생을 경유한 죽음만이 신성성을 얻을 수 있다. 여성의 죽음은 결국 이타적 행위의 정점으로서 순교자의 죽음처럼 숭고하고, 그래서 더욱 비극적이다.

결국 장자못 설화의 본질은 ‘희생’이다. 끊임없는 자기희생, 타인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용기와 그 선한 의지만이 신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고, 여성의 돌아봄이 결국 그에 대한 해답이다. 여성의 화석화는 죽음을 감내한 모성(母性)이 보여주는 생명에 대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머느리의 석화는 신성성을 부여받고, 생명을 관장하는 모신으로서의 직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4. 결론

본고는 등장인물의 기능으로 단락소를 구성하고, 이 기능들이 순차적 구성에 의해 진행된다는 전체에서 논의를 시작하였다. 장자못 설화는 장자의 악행이 결핍의 요소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인간에 대한 불신과 인류애적인 요소들

47) Alan Dundes, THE MORPHOLOGY OF NORTH AMERICAN INDIAN FOLKTALES, *FF FOMMUNICATIONS* No. 195, Helsinki, 1980, p. 279.

알렌 던테스는 순교자의 구조를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Lack(결핍)

Liquidation(결핍충족)

Test(시험)

Test Passed(시험통과)

48) 르네 지라르 저, 김진식·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민음사, 1997), 386쪽.

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핍은 장자못의 수몰과 며느리의 석화로써 해결된다.

며느리의 석화는 희생의 결과이며, 그것은 장자못 설화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희생은 끊임없이 타인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용기와 그 선한 의지만이 신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고, 여성의 돌아봄이 결국 그에 대한 해답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금기 위반은 여성의 인정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그에 대한 위반은 실패가 아닌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 순차적 구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장자못이라는 징치 이면에 생산을 야기하는 여성 인물의 탄생에 있다. 장자못의 형성은 홍수 신화의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는 반면, 여성은 희생과 석화의 메커니즘을 통해 새로운 신적 영웅이 탄생하는 이니세이션을 구성한다. 즉, 장자못 설화는 이타적인 인물군이 희생과 석화의 과정을 거쳐 신성성을 획득하고 비로소 母神으로 탄생하는 여정이라 할 수 있다.

아이를 업고 산채로 돌이 되어버린 여성, 이 여성은 선(善)이 극대화된 모신(母神)이며, 차마 어찌할 수 없는 선(善)한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고만 여인이다. 이 여성의 희생적인 돌아봄은 모든 인간을 포용한 인정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화석은 모성성의 극대화를 이룩한 미륵화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미란, 『한국소설의 변신논리』(태학사, 1998).
- 김재용·이종주, 『왜 우리 신화인가』(동아시아, 1999).
- 나카자와 신이치 저, 김옥희 역,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동아시아, 2009).
- 류성민, 『성스러움과 폭력』(살림, 2003).
- 르네 지라르 저, 김진식·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민음사, 1997).
- 마르틴 하이데거 저, 소광희 역, 『존재와 시간』(경문사, 1995).
- 미르치아 엘리아데 저, 이재실 역, 『대장장이와 연금술사』(문학동네, 1999).
- 미르체아 엘리아데 저, 이은봉 역, 『성과 속』(한길사, 1998).
- 블라디미르 프롭 저, 황인덕 역, 『민담형태론』(예림기획, 1998).
- 송효섭, 『해체의 설화학』(서강대학교 출판부, 2009).
- 에드워드 텔프 저,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논형, 2005).
- 조셉 캠벨 저, 이윤기 역,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민음사, 2010).
- 진 쿠퍼 저, 이윤기 역,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상징사전』(까치, 1994).
- 최래옥, 『한국구비전설의 연구』(일조각, 1981).
- 최선만, 『강릉의 역사변천과 문화』(강릉관광협회, 1962).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속종합자료보고서』(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 한국정신문화연구원어문연구실, 『한국구비문학대계』1-82권(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8-1989).

2. 논문

- 강봉근, 「<장자못전설>과 <각시바위>의 비교 연구」, 『국어문학』(국어문학회, 1999).
- 강진옥, 「구전설화 유형군의 존재양상과 의미 층위」(이화여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86).
- 권태효, 「<돌부처 눈뜰어지면 침몰하는 마을>담의 홍수설화적 성격과 위상」, 『구비문학연구』(한국구비문학회, 1998).

- 김선자, 「금기와 위반의 심리적 의미에 관한 고찰」, 『중국어문학논집』(중국어문학연구회, 1999).
- 김용덕, 「금기설화의 구조와 상징적 의미 연구」, 『한국언어문화』(한국언어문화학회, 2008).
- 김재용, 「전설의 비극적 성격에 관한 일고찰」, 『서강어문』(서강대학교, 1981).
- 김정은, 「전설에 대한 남북한의 관점과 소통 가능성의 전망」, 『남도민속연구』(남도민속학회, 2010).
- 김혜정, 「<장자못 전설>의 전파력 연구」, 『구비문학연구』(한국구비문학회, 2009).
- 류순애, 「한국고대 금기설화의 양상」, 『국어국문학』(부산대학교, 1984).
- 박영달, 「전북부안지방 설화연구」(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신동훈, 「설화의 금기 화소에 담긴 세계인식의 층위」, 『비교민속학』(비교민속학회, 2007).
- 신연우, 「장자못전설의 신화적 이해」, 『열상고전연구』(열상고전연구회, 2000)
- 심우장, 「전설에 나타난 숭고의 미학-<장자못> 전설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국문학회, 2014).
- 이상백, 「한국 금기설화의 연구」, 『어문학교육』(한국어문교육학회, 1981).
- 이숙인, 「소문과 권력」, 『철학사상』(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1).
- 이주영, 「한국홍수설화에 나타난 신과 인간의 대립담론」, 『한국민속학』(한국민속학회, 2011).
- 장영란, 「희생제의와 희생양의 철학적 기능」, 『동서철학연구』(한국동서철학회, 2013).
- 장장식, 「금기설화연구」, 『한국민속학』(한국민속학회, 1984); 「금기의 갈등구조」, 『한국민속학』(한국민속학회, 1985).
- 천혜숙, 「장자못 전설 재고」, 『민속어문논총』(계명대출판부, 1983).
- 천혜숙, 「전설의 신화적 성격에 관한 연구」(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 최래옥, 「설화와 그 소설화 과정에 대한 구조적 분석」(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8).

최재선, 「구비설화의 금기모티프에 나타난 민중의식」, 『모악어문학』(전주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87).

최학출, 「설화 모티프의 시적 변용」, 『울산어문논집』(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5).

한승철, 「설화의 삼분법에 대한 재고」, 『경기어문학』(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90).

Alan Dundes, THE MORPHOLOGY OF NORTH AMERICAN INDIAN FOLKTALES, *FF FOMMUNICATIONS* No. 195, Helsinki, 1980.

【국문초록】

장자못 설화는 우리나라의 광포(廣布)전설로, 금기설화의 대표적 이야기라 할 수 있다. 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여성의 ‘돌아봄’을 금기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며느리의 화석(化石)을 부정적 의미로 해석한다. 하지만 장자의 대비적 인물로 분한 며느리가 함께 징치되었다는 점은 분명 석연치 않다. 장자못 설화의 구조에 대한 의문은 여기서부터 비롯된다. 과연 장자못 설화가 금기 위반의 구조인가, 며느리의 화석은 징치의 결과물인가. 그러나 며느리의 화석은 기자적으로서 생산성을 가진다.

본고는 여타의 이본에서 등장하는 여성의 석화와 더불어 신성성이 함께 발생하는 구조적 특징에 대해 밝혀보고자 했다. 그 결과 금기는 시험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으며, 장자못 설화는 선(善)에 대한 시험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인정에 대한 확인과 그에 대한 신성성 부여로 이루어진 구조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통해 석화와 신성화의 매커니즘이 모신(母神)의 탄생이라는 이니세이션에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장자못 설화의 며느리는 모신이라는 인물군의 한 유형으로써 제기될 수 있으며, 이 유형을 통해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지평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금기, 위반, 희생, 순교자, 신성화

A Study on Legend of Jangjamot Pond

Oh Jeong-mi

“A Legend of Jangjamot Pond” is one of the widespread legends in the country, which is categorized as the taboo tale. Previous studies on “A Legend of Jangjamot Pond” define women’s ‘looking back’ as the violation of taboo, and interpret daughter-in-law’s fossil as the result of correction. However, it is not satisfied that a good daughter-in-law donating rice to a monk without telling her father-in-law was corrected with a vulnerable man. Moreover, a problem that the fossil, a result of correction, is hallowed is also a lingering dilemma. A question of the Jangjamot Pond tale’s structure is started from here. Indeed, is the Jangjamot Pond tale the structure of taboo violation? And, is the fossil of daughter-in-law a result of correction?

This research is going to review the structure of “A Legend of Jangjamot Pond”, look into the meaning of prohibition inserted in the middle part of the story again, and resolve the problem that the fossil of daughter-in-law who violated prohibition is hallowed, at the same time.

A tale of Jangjamot Pond is divided into a total of 6 paragraphs: ‘it is talked that there is a miser in a town’; ‘a monk visits the miser’s house and demands offering to a temple, but the miser denies it and gives the

monk excrement instead'; 'the miser's daughter-in-law donates rice to the monk without telling her father-in-law'; 'the monk tells her to follow him, but not to look back and climb a mountain'; 'the town goes to a watery grave, and the daughter-in-law looks back'; and 'she finally becomes a stone.' It was found that each of these paragraphs means lack-test 1-passing test 1-test 2-passing test 2-satisfying the lack, and it has the similar type of the martyr's structure proposed by Alan Dundes.

After all, the tale of Jangjamot Pond is identified it is not a structure that is composed of taboo, violation of the taboo, and punishment of the violation, but a structure of identifying compassion and giving it sacredness with repeated and gradual tests of goodness. And through this interpretation, it is discovered that the meaning of 'taboo' in the structure of a tale gets out of the previous studies defining its meaning just as a device for identifying the god's authority and the taboo's meaning can vary according to the composition of paragraphs in the structure of a tale.

The taboo 'Don't look back' in the tale of Jangjamot Pond is a temptation to test goodness and a test, and women's looking back can be interpreted as passing the test by overcoming the temptation. Women are the achievers who passed tests two times and a fossil is the result. Sacredness of fossil particularly exposed in the other stories eventually shows the meaning of 'taboo' in the tale of Jangjamot Pond is a 'test'. That a fossil to be seen as another expression of the daughter-in-law has an ability to conceive a life and is recognized as another religious belief proves the daughter-in-law is not a woman who was corrected but had achieved sacredness.

Key words: taboo, violation, sacrifice, martyr, sanctify

이 논문은 2015년 10월 7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11월 13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5년 11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